

# 설화 연구 통한 '여성다움'의 억압적 굴레 깨기

클라리스 P. 에스테스 지음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프로이트 심리학과는 달리 융은 집단 무의식, 즉 '원형'에 의해 심리를 분석한다. 클라리스 P. 에스테스 박사는 심리 분석가, 상담·치료사로 많은 여성들과 상담하고, 전세계의 민담·전설을 분석하여 여성에 대한 새로운 '원형'을 제시한다. 아니 새롭다기보다는 그동안 남성에 의해, 종교에 의해, 도덕·관습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늑대'를 여걸로서 부활시키고 있다. 또한 늑대가 복권됨에 따라 수많은 늑대 여인들이 치료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 '푸른 수염', '빨간 신' 같은 동화를 비롯해 남미, 동 유럽, 일본 등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까지를 망라해서,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여걸 원형'으로 여성의 삶을 해석해 준다.

에스테스 박사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삶-죽음-삶'의 주기이다. 여성이 심리의 상냥한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시기, 너무 상냥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시련을 겪는 시기, 여걸의 도움으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시기로 여성의 삶을 구분할 때 삶-죽음-삶의 주기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주기가 적용되는데, 이는 '해골 여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갓가지 친근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해석함으로써 여성을 치료하려는 이 책은, 융 심리학에 문외한인 나에게도 과학이라기보다는 문학의 산물처럼 보인다. 설화나 동화를 해석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해석하는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인 듯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성냥팔이 소녀'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들과 그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듯이 모든 여성의 삶은 여걸의 도움으로, 또는 여걸인 자신의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낙관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인데, 이 도움이 실제 여성들의 삶에 근거한 것인지, 작가의 이야기 해석에 대한 관점인지 명확치 않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해도 이 책은 여성들이 그동안 '여성다움'의 굴레에 갇혀서 이루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용감함, 거침없음, 당당함 등-을 거러잡음이 드러내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자신을 옹호해 놓은 관계에서 단절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상징적이고 소설적인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이를 읽는 모든 여성이 바로 자신에게

하는 충고라고 느끼게 하며 이런 요소가 정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이 책에서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외치는 충고는 바로 "내게 금지된 것을 원하고", "단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 신수진

인천시 남동구 만수4동 만수주공APT 416동 1502호

## 오숙희 지음 「그래, 수다로 풀자」

오숙희의 「그래, 수다로 풀자」를 읽고 나니, 마음맞는 사람과 실컷 얘기를 한 느낌이 들었다. 입에 맞는 먹을 것으로 간간히 입술을 축이며 조금은 웅졸한 듯한 속내를 들여보여도 "그래그래"하며 맞장구를 쳐주고, 훈계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냉수같은 도움말을 가만가만 일러주는 그런 말상대와 말이다.

3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종이를 채운 그의 얘기들은 활자화되어 있지만 독자들은 활자에서 수다 그 자체를 들을 수 있었다. 스스로의 답답한 얘기들을 다 쏟아낸 듯한 시원함이 남는 것은 분명 자신의 의견을 술술 풀어가듯 전하는 기술에 가진 오숙희씨의 알아주는 언변이었을지도 모른다.

가히 수다예찬론에 가까운 그의 글들은 여성들의 수다속에 들어있는, 수다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과 의미 등을 속속들이 밝혀주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이 "가슴 속에 퍼내고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른 펄프의 물 한바가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숙희씨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랬었지"하고 다리를 치게 될 사람들은 저자와 같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편견이 남아있는 이혼녀일 수도 있고, 넓게 보면 할말 많은 이 세상에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 일을 '여편네들의 수다'라면서 눈총받은 경험이 있는 대개의 여성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독립가족과 가족공동체를 꾸리고 살고 있는 현재 그의 생활방식이다. 이기적이기 쉬운 요즘의 세태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 모르지만 "따로 또 같이" 살면서 육아 문제나 외로움을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실험방식의 공동체를 그는 권하고 있다. 오숙희 씨처럼 인복도 많이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린다.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 그의 말투는 조금은 속내를 감추고 두리뭉실하게 지나갈수도 있었던 이혼이라는 자신의 아픈 부분에서도 예외가 없다. 충고의 형식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소외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을 이혼녀들에게 오숙희씨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충분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다'가 여성들만의 전유물같고, 그것도 할일 많은 세상에 멀찌감치 떨어져 '쓸데없는' 얘기나 늘어놓고 있는 여자들의 특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고 싶다. '남자다움'이라는 허울에 묶여 하고싶은 말 다하지 못하고 가슴에 벽을 치고 사느니 우리 함께 허심탄회하게 수다를 털어보자고.

## 한혜영

관악구 봉천4동 삼우APT 3동 501호

## 「녹색혁명가 페트라 켈리」

「녹색혁명가 페트라 켈리」는 1980년대 초반 반핵·환경운동의 기수인 독일 녹색당 창당을 주도하고 당대변인과 당수직을 역임했던 미모의 정치가 페트라 켈리의 일생을 다룬 책이다. 페트라 켈리의 생애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활동과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한 인물 연구서로 보아도 큰 손색이 없다. 덧붙여 환경운동에 크나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점에서 본다면, 그녀가 주도했던 '녹색당'과 그녀의 영향력에 대해 이처럼 자세하게 소개한 책도 드물다.

각국에서 그린 라운드 대책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정도로 환경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본다면, 열정적으로 환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 당연한 일이다. 페트라 켈리는 92년 10월 19일에 죽었지만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녀를 빌리 브란트와 더불어 20세기 독일이 낳은 위대한 정치가로 꼽고 있다. 또한 그녀는 유럽을 움직인 현대여성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환경운동과 반핵운동 등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한 인물이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

생전에 그녀는 환경운동의 평화시위가 있을 때면 청바지에 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선

두에 서서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이 책에선 그녀의 엄청난 저돌성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발로였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대학시절, 그녀는 남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애썼다.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 때부터 부당한 일을 보면 서슴없이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띄웠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못받게 되었을 때는 로버트 케네디에게 하소연했고, 암환자인 여동생을 데리고 독일의 낯은 병원시설을 목격하게 됐을 때는 서독 수상에게 개선을 요구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 교황을 알현할 기회를 마련했고, 양아버지가 암에 걸린 동생을 두고 베트남으로 전출하게 됐을 때 미국무성을 찾아가 소환을 유예시켰다.

대학 졸업 후에도 그녀는 적극성을 계속 발휘해 수많은 서류더미 속에서 여러가지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주축하거나 거기에 동참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에서의 반핵운동, 미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켈기대회, 아일랜드에서의 원전 반대운동 등으로 나타났고 세계 각처를 가리지 않았다. '크레펠트 호소문'을 통한 재무장 반대, 빌리 브란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미사일 배치에 항의하는 뉘른베르크 모의 법정, 동독 수상 호네커에게 보낸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권력기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가치와 평화로운 삶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녹색당'의 당원들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소수의 특정인물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지고 사회가 지배당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녀와 녹색당이 이룩한 뚜렷한 성과라면 사람들에게 환경운동 및 여러 사회운동의 필연성을 인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죽고 없다. 세계가 냉전의 시대에서 벗어나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한 이때에, 이 방면의 선구자이자 상징적인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반핵·환경운동의 잔타크'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을 뿐이다.

## 배원자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산82번지 삼성전기(주)